“지역경제 활성화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지원”

유정복 인천시장(왼쪽)이 윤환 계양구청장(오른쪽)과 경인아라뱃길 수변관광지 조성 등 계양구 현안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

유정복 시장, 계양구 찾아 ‘민생소통 대장정’

경인아라뱃길 수변관광지·공연장 건립 현장 등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이 주요 현안사업 현장을 찾아 시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민생소통 대장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강화군, 동구에 이어 세 번째로 29일 계양구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날 유 시장은 경인아라뱃길 수변관광지 조성과 계양 문화예술 공연장 건립사업을 위한 현장을 둘러보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계양구의 주요 현안은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이다.

경인아라뱃길 수변관광지 조성사업은 2026년까지 계양구 장기동 109-2번지 일원을 중심으로 경인아라뱃길 주변에 문화·관광·레저 중심의 친수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경인아라뱃길 기능 개선방안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오는 12월 준공예정으로 시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분야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계양 문화예술 공연장 건립사업은 2025년까지 계양구 장기동 53-2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30,000㎡, 연면적 10,000㎡ 규모로 공연장, 연습실, 분장실, 부설주차장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계양구 공연장이 노후화 되고 계양 신도시 조성으로 약 4만명의 인구가 새롭게 유입될 예정으로 서북권 문화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유 시장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시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인프라 확충에 시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득 기자 kjd@hyundaiilbo.com

서구, 음식물 가정용 감량기 설치 지원

140대분 보조금 추가 지원…구입 금액 50% 최대 30만원

인천 서구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을 위한 ‘음식물 가정용 감량기 설치비 지원 사업’으로 10월 중 약 140대분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지난 2021년부터 지원을 시작해 1000여 세대에 감량기 설비치 지원을 완료했다. 서구 관계자는 “감량기는 음식물쓰레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음식물탈리액(음폐수) 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배출원부터 실질적 감량에 기여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와 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해충 문제까지 해결돼 주민들의 많은 환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구는 추가 예산을 확보해 10월 중 감량기 설치 보조금 약 140대를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 가구에 한해 감량기 구입 금액 50%(최대 30만원)을 사후 보조금 방식으로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서구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감량기는 건조(분쇄)·미생물발효 감량방식으로 단체표준, 환경표지, k-마크 등 1개 이상의 품질인증을 득한 제품으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 기기 현황 등 자세한 사항은 서구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서구 자원순환과로 문의하면 된다.

강용희 기자 kangyh8240@naver.com

유천호 강화군수가 군정 운영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사진은 화개정원 전망대 전경. (사진 : 인천 강화군 제공)

인천시, NH농협은행 컨택센터 개소

120여명 상담사 전원 인천 지역인재 채용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 큰 도움 기대

NH농협은행 고객행복센터가 부평역에 새롭게 개소했다. (사진 :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NH농협은행 컨택센터(콜센터) 인천센터가 부평역 북인천우체국 건물에서 28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소식 행사에는 인천시의회 박종혁 의원, 이명규 의원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했다.

인천시와 NH농협은행은 지난 7월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컨택센터를 신설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120여명의 상담사를 전원 인천출신의 지역인재로 신규채용 하는 등 상호협력해 왔다.

NH농협은행 고객행복센터 인천센터는 예금·전자 금융 등 농협은행 대표번호 수신 일반 인바운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컨택센터는 전화나 인터넷 통신 수단을 이용해 상품정보 및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소리 없는 산업현장’으로 불리며 각광받고 있다. 도심의 빈 상가빌딩을 채워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은 물론 상담원들의 소비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돼 지자체들의 유치경쟁이 치열하다.

이용수 인천시 투자창업과장은 “최근 컨택센터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지속적인 기업 유치활동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현재 인천시에는 61개의 컨택센터에서 2,600여명의 상담사가 근무 중이다.

김종득 기자 kjd@hyundaiilbo.com

유천호 군수 “풍요로운 강화 실현 전력”

군민 체감형 역점사업 발굴…업무계획 수립

제3·4 장학관 건립·길상공원 조성 등 주요 사업

유천호 강화군수가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마무리하고 2023년도 군정운영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29일 밝혔다.

‘함께 만들어갈 풍요로운 강화 100년’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보고회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에 대응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 8기 공약사업과 주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군민 체감형 신규 역점사업 발굴에 역점을 둔 보고회를 통해 핵심사업 106건, 주요업무 219건 등 총 325건의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강화 제3·4장학관 건립 △길상공원 조성 △외포지구 종합어시장 건립 △화개정원 관광자원 확대 △서도연도교 건설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천문과학관 건립 △창업공유오피스 설립 △하점·양사 주민자치센터 신축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월선포~상용 해안도로 조속 개설 △강화~계양 고속도로 강화구간 신규교량 우선 건설 △조업한계선 확대 추진 △지능형 CCTV시스템 구축 △풍물시장 주차장 추가 조성 등을 선정해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발굴된 사업은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 지금부터 사업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방침이다. 예산 반영 즉시 사업에 착수해 사업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유천호 군수는 “민선 8기 공약사업과 주요 역점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그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군민이 행복한 풍요로운 강화군을 실현하기 위해 800여 공직자들과 함께 구슬땀이 닳도록 전력 질주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득 기자 kjd@hyundaiilbo.com

“지자체 소통·정부 긴밀 협력 현안 해결”

시장·군·구청장협 부회장에 이재호 연수구청장

이재호 연수구청장이 민선8기 전반기 전국 자치단체간 협력과 공동현안들을 논의하고 이끌어 나갈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8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민선8기 첫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을 대표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호 연수구청장이 부회장으로 선출되면서 앞으로 2년간 협의회 공동회장단 회의 운영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상호 교류와 협력,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공동문제 대응, 대정부 정책건의 등의 핵심 역할을 하게됐다.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전국 226개 기초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협의체로, 자치단체 간 공동현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상생 협력 및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는 단체로 격월로 정례회의 등을 통해 주요 현안사항을 논의해 왔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에 이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회장으로 선출된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방자치단체간 소통은 물론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각종 현안을 해결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득 기자 kjd@hyundaiilbo.com

인천관광공사-대한불교조계종 전등사

시 관광 활성화·가치 창출 업무협약

인천관광공사(사장 민민홍)와 대한불교조계종 전등사(주지 여암스님)는 지난 28일 국내·외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인천 관광 활성화 및 지역사회 가치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강화도에 위치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찰인 ‘전등사’는 사찰 내 6개의 국가 보물과, 국가 사적인 삼랑성, 6개의 인천유형문화재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중 템플스테이 운영 및 삼랑성 역사문화축제 등 다양한 지역·문화행사 등을 개최 하고 있는 곳이다.

공사는 전등사와 협력해, 인천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홍보는 물론, 국내·외 관광상품 개발 및 MICE분야 유니크베뉴로의 활용, 인천 웰니스 관광지로서 다양한 상품개발 및 육성 등을 통해 국내 관광객은 물론, 엔데믹 이후 해외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인천관광공사 민민홍 사장은 “이번 전등사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인천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다시 한번 알리고, 전등사의 웰니스관광지 및 유니크베뉴로서의 가치 등 다양한 매력을 지속 발굴해 국내외 관광객들이 전등사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쌓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종득 기자 kjd@hyundaiilbo.com

편집=송지연 기자 sjy@